

녀자순덕가



[해제]

이 가사는 1935년 11월에 서우석(徐雨錫)이 발행한 금속 활자본 <규문보감>에 ‘녀자순덕가’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전하는 규방가사(閨房歌詞)이다. 작자와 제작 연대등이 밝혀 있지 않으나, 작품의 표기와 이를 전하는 문헌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광복된 뒤, 여류의 교양서로서 많이 읽혀졌던 현대가사로 판단된다. 가사의 제목에 보이는 ‘순덕’은 한자어의 표기임이 확실하다. 때문에 글 제목에 보인 이 한자어는, ①유순(柔順)한 덕(德)을 뜻하는 순덕(順德), ②순수한 덕, 또는 빠짐없이 도덕을 행하는 일을 의미하는 순덕(純德), ③순후(淳厚)한 덕을 의미하는 순덕(淳德) 등 몇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가사의 작자가 취한 한자어는 그 중 어느 것인지 일견 의문되는 바가 없지 않다. 작품의 내용에 의하면 위의 ①에서 말하는 순덕(順德)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의 서술에서 유순함을 비롯하여 형제간에, 부부간에, 일가 간에 유순하고, 유순지덕(柔順之德)과 유순지심(柔順之心), 아울러 유순지사(柔順之事)를 들면서 유순을 누누이 내세웁은 바로 작자가 여자의 순덕(順德)을 노래하고자 한 의도임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전개에서는 위의 ②와③에서 말하는 ‘순덕’도 곳에 따라 견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여자순덕가>는 유순한 덕을 바탕으로 한 규문여자(閨門女子)의 행실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평소의 용모와 말씨, 집안에서의 길쌈과 제사, 그리고 빈객접대 등 여러 면에서 모범된 여자 행실의 규범을 세련된 글 솜씨로 제시한 내방가사의 대표작으로 지적된다. 노래의 형태상 짜임은 총186구의 장편으로서, 그 중에는 40여 구의 3.4조 배치가 있기는 하지만, 135구에 이르는 4.4조의 구성을 위주로 한 여류가사이다. 물론 사설의 전개에서 과음절(過音節) 내지는 결음절(缺音節)의 취용으로 말미암아 3.5조, 3.6조, 4.3조, 4.5조, 5.3조 등의 작구(作句) 배치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수사는 모두 10구 미만일 뿐이므로, <여자순덕가(女子順德歌)>는 4.4구조를 기저로 하여 풍부한 내용을 질서있게 서술한 여류 교훈가사로 이해된다.

[원문]

규문보감권지사
녀자순덕가

천지간 만물중에 귀할사 사람이라
사람마다 귀한바는 오륜삼강 그아닌가
인의예지 착한승품 사람마다 갖거니와
강근유순 네글자 남녀가 다르도다
음양이 길이달너 녀자가 되여스니
하날이 주신두글자 부대부대 잊지마라
부모임게 유순하면 부자자효 될거시오
형제간에 유순하면 형우제공 될거시오
부부간에 유순하면 부화부순 될거시오
일가간에 유순하면 목족지의 될거시라
마음에 새쳐두고 골수애 새겨두어
자나깨나 잊지말고 오나가나 일치마라
금을주니 밧굴소냐 옥을주니 밧굴소냐
일자천금 옛말삼 이제야 알것도다

중심에 색인덕이 외모에 들어나니
아름답고 어여쁘다 찬란할사 저광채여
얼골이 청수하니 연지분 무색하다
일신이 윤택하여스니 능나금수 불버마러라
취미를 나즉하고 흥안을수 거가저
말의말삼 공순하고 말의말조 삼심하라
마지못한 한두마디 마지못한 문넢대답
안자쓰나 누어쓰나 삼함기구 잊지마라
엇지보면 그림자요 엇지보면 헛갑이라
단정한 저덕행은 태임이 그아닌가
요조한 저태도는 태사가 분명하네
친가의 부모임은 효녀라 사랑하고
식댁의 구고임은 효부라 깃거하고
일가이며 친척들은 노소읍시 흥양하고
향당의 고구임들은 상하읍시 총친하네
유순지덕 일치말면 공경지심 절노나서
사시증상 시제사며 일연일도 그제사에
빨내빨어 새옷입고 멀리목욕 세수하고
보게변두 새로씻고 주과포혜 정이차려
삼대사대 조상임을 지성으로 숭봉한다
유순지덕 일치말면 후덕지심 절노나서
문전의 오난손임 흔관이 대접하내
봉제사 접빈객은 집마다 큰일이라
싼조석을 할지라도 괴롭다 말을마러라
도간이 어머니난 도간이 기를적의
손임이 차자오면 형세간 구하기로
말이털을 베여내여 술을바다 대접하내
정성이 이러키로 그아들 성취하야
당시에 큰일흥이 죽백에 드리여서
지금까지 유전하니 그야아니 그록할가
웃더한집 부녀들은 무례무의 막심하야
이것저것 다바리고 말삼으로 종사하내
허허실실 잡담하기 전쟁불식 싸흠하기
구고임게 푸악하기 동서간에 이간하기
소행이 저러하니 신세를 어이할고
너의들은 이일보아 더욱조심 하여서라
웃더한집 부녀들은 무례무의 막심하야
조상제사 전폐하고 귀신기도 일을삼어

절에가서 불공하기 무당불너 푸닥거리
조석거리 더러내여 스되스흠 썩을하고
구실거리 더러내여 한양두양 낮천눅코
수부귀다 남자를 아모리 축수한들
조상이 미워하고 하늘이 실어하니
생기난니 우환이요 나리나니 재앙이라
너의들은 이일보아 더욱조심 하여서라
웃더한집 부녀들은 무례무의 막심하여
한달만의 두달만의 손임한번 오게드면
함박썩박 드노면서 현어사색 승을내여
제집숫티 개가누엇나 남의집에 어이왔난고
한입건너 두입건느니 인구전파 자연철도다
잇해산년 지내간들 웃던손임 다시올가
너의들은 이일보아 더욱조심 하여서라
부대부대 조심하여 유순지덕 일치마라
이맘저맘 다바리고 유순지심 길너서라
이일저일 다더지고 유순지사 행하여라
일즉일즉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여눅코
방마루 새긋이썰고 머리빚고 세수하고
고양미를 정이썰코 살진아옥 썩거다가
국숫싣고 웅숫싣고 국쓰리고 메를지어
부모임과 구고임을 지성으로 봉양하고
다락씨와 갈고리를 양편손에 갈너쥐고
오모양전 심은썩을 가지가지 입을홀터
메고이고 도라와서 아기누에 길너내여
굴근고치 가는실을 숨시있게 풀어내여
칠양귀 벼틀우에 오색단 일워내여
청천수 말근 시내에 배숫갓치 헤워내여
칠팔월 폭양벳해 날마다 썩여내여
삼경반야 기훈밤에 등잔불을 도도켜고
큰웃시며 속웃시며 제도있게 지어내여
부모임과 구고임을 지성으로 봉양한다
지성으로 봉양하면 하늘게서 감동하사
관관저구 조흔금실 백년해로 점지하여
유용유비 길한몽조 자손만당 복을주어
큰아들 자근아들 소학대학 가라쳐
요순우탕 법을밧고 안증사맹 도를세워
부모임의 뜻을밧고 구고임의 몸을길너

훈정신성 조석문안 채산조수 감지공양
통양역소 효성이요 출입부지 공경이라
금년명년 천만년의 자자손손 이러하라
昭和拾年十一月二十日印刷
昭和拾年十一月三十日發行

◇-----◇

不許忠淸北道沃川郡伊院伊院面里二二六番地
複製編輯兼도雨錫

◇-----◇發行人

京城薰松洞二六番地

印刷人朴忠植

京城薰松洞二六番地

印刷所鮮光印刷株式會社

[현대역]

천지간(天地間) 만물(萬物)중에 귀한것은 사람이라. 사람마다 귀한 바는 삼강 오륜(三綱五倫) 그 아닌가. 인의예지(仁義禮智) 착한 성품(性稟) 사람마다 같거니와, 강근 유순(強近柔順) 네 글자, 남녀가 다르도다.

음양(陰陽)이 길이 달라 여자가 되었으니, 하늘 주신 두 글자 부디부디 있지 마라.

부모님께 유순하면 아버지 인자하고, 자식 효도 될 것이요. 형제간에 유순하면 형제간에 우애하고 공경함이 될 것이요, 부부간에 유순하면 부부가 화목하고 순화함이 될 것이요, 일가 간에 유순하면 친척끼리 화목의 뜻 될 것이라.

마음에 깨쳐두고, 골수(骨髓)에 새겨두어, 자나 깨나 잊지 말고 오나가나 잃지 마라, 금을 준들 바꿀쏘냐. 옥을 준들 바꿀 쏘냐. 일자 천금(一字千金) 옛 말씀을 이제야 알겠노라. 중심에 새긴 덕이 외모에 들어나니, 아름답고 어여쁘다, 찬란하다 저 광채(光彩)여. 얼굴은 깨끗하여 빼어나게 청수(淸秀)하니, 연지분이 무색하다.

운몸이 윤택하니, 귀한 사람 입을 옷감 능라 금수(綾羅錦繡) 부러워 하지 말라. 취미를 나직 하고, 혈색 좋은 홍안(紅顏)은 겸손하게 갖추고서, 말할 때의 말씨는 공손하고 순히 하며, 말씨의 어조는 물 스미듯 잔잔하라. 마지못한 한두 마디, 마지못해 묻는 대답, 앉았으나 누었으나 입을 세 번 봉해 말 삼가란 묘한 글귀 잊지 말라. 어찌 보면 그림자요, 어찌 보면 허깨비라. 단정한 저 덕행(德行)은 주문왕(周文王) 어머니인 태임(太任)이 그 아닌가.

행실이 양전하여 요조(窈窕)한 저 태도는 주(周)나라 현부인인 태사(太姒)가 분명하네.

친가(親家)의 부모님은 효녀(孝女)라 사랑하고, 시댁(媳宅)의 시부모님 효부(孝婦)라 기꺼하고, 일가친척(一家親戚) 거래붙이 노소 없이 공경하여 우러러 사모하고, 향당(鄉黨)의 시부모들 상하 없이 총총이 친히 하네.

유순지덕(柔順之德) 잃지 말면 공경지심(恭敬之心) 절로 나서, 사시에 올리는 시향(時享)의 제사며, 해마다 한 번 올릴 기일의 기제사(忌祭祀)에 빨래 빨아 새 옷 입고, 머리 목욕 세수하고, 보귀(簠簋)와 변두(邊豆) 등 제기를 새로 씻고, 주과(酒果)와 포혜(脯醢) 등 제물을 정히 차려, 삼대 사대 조상님을 지성으로 숭배해 받드니라.

유순지덕 잃지 말면 후덕지심(厚德之心) 절로 나서, 집문 앞에 오는 손님 흔쾌히 대접하네.

조상 제사 받드는데 빈객을 접대함은 집마다 큰일이라, 아침 저녁 서로 달리 할지라도, 괴롭다 말 말아라. 진(晉)나라 도간(陶侃)이의 어머니는 도간이를 기를 적에, 범규(范逵)란 손님께서 집에 찾아 왔을 때에 집안 형편 가난하고 구차해서, 머리털을 베어내어, 술을 받아 대접했네. 정성이 이러키로 그 아들 도간이는 장한 뜻 이루어서, 당시에 큰 이름이 역사의 기록으로 죽백(竹帛)에 들어있어, 지금까지 전해오니, 그야 어찌 거룩하지 아니할까. 어떤 집의 부녀들은 예의 없기 막심하여, 이것저것 다 버리고, 말 씀으로 일을 삼네.

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이듯 잡담하기, 다툼에는 쉬지 않고 싸움하기, 시부모님 포악하기, 동서간(同壻間)에 멀어지게 이간하기, 하는 행실 저러하니, 그 신세(身世)를 어이할꼬. 너희들은 이 일 보아 더욱 조심 하려무나. 어떤 집의 부녀들은 예의 없이 무례 무의(無禮無義) 막심하여 조상의 제사마저 전적으로 폐지하고, 귀신께도 일을 삼아 절을 찾아 부처님께 공들이기, 무당을 불러대어 푸닥거리 일을 삼기, 조석(朝夕)거리 덜어내어 세 되 서 흙 가져다가 떡을 하고, 세납(稅納)할 돈 덜어내어 한 냥 두 냥 남겨 놓고, 장수하고 부귀하며 아들 많기를 아무리 두 손 모아 축수(祝手)한들,

조상이 미워하고, 하늘이 싫어하니, 생기는 바 우환(憂患)이요, 내리는 것 재앙(災殃)이라. 너희들은 이 일 보아 더욱 조심 하여서라, 어떤 집 부녀들은 예의 없이 무례 무의(無禮無義) 막심하여,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손님 한 번 오게 되면, 크고 작은 함박 쪽박 들썩거리며, 말과 얼굴빛에 드러내고 성을 내어, 제집 술엔 개 누웠나, 남의 집에 왜 왔는고.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사람 입에 전파하기 자연히 쉽다. 두 해 세 해 지내간들 어떤 손님 다시 올까. 너희들은 이 일 보아 더욱 조심 하여서라. 부디 부디 조심하여 유순한 덕 잃지 말라. 이 마음 저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서, 유순한 맘 길러서라. 이 일 저 일 다 던지고, 유순한 일을 행하여라.

일찍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어 놓고, 방과 마루 깨끗이 쓸며, 머리 빗고 세수하고, 공양미(供養米)를 정히 씻고, 살진 아욱 꺾어다가 국솥 씻고 웅달솥 씻어, 국 끓이고 밥을 지어, 부모님과 시부모님 지성으로 봉양(奉養)하고, 다래끼와 갈고랑이 양편 손에 갈라 쥐고, 오무지택(五畝之宅) 좋은 밭에 심은 병을 가지가지 잎을 훑어 등에 메고 머리 이고 돌아와서, 아기누에 길러내어, 굶은 고치 가는 실을 솜씨 있게 풀어내어, 크나큰 칠량(七樑) 기둥 배틀 위에, 오색 비단 이뤘내어, 청천수(靑泉水) 맑게 흐른 시냇물에, 배꽃같이 행귀내어, 칠팔월의 뜨거운 태양 별에, 날마다 찌어내어, 한밤중 깊은 밤에, 등잔불을 도두 켜고, 큰옷이며 속옷 등을 기준에 맞추어서 제도 있게 지어내어, 부모님과 시부모님 지성으로 봉양한다. 지성으로 봉양하면 하느님 감동하사, 다정히 짝을 짓는 물수리의 좋은 금실, 부부되어 평생 동안 함께 삶을 점지하여, 용맹한 웅비(熊羆) 보인 길상한 꿈의 징조 자손 많은 복을 주어, 큰아들 자근아들 소학(小學) 대학(大學) 가르쳐서,

요순(堯舜)과 우(禹)의 탕왕(湯王) 성인들의 법을 받고, 안자(顏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현인들의 도(道)를 세워, 부모님의 뜻을 받고, 시부모님 몸을 길러 아침저녁 부모님의 안부 물어 살피고, 나물 캐고 고기 낚아 좋은 음식 공양하여, 아픔을 덜게 하고 가려움 긁어 주는 효성이요, 출입에 부추김은 어버이께 공경이라. 금년 명년 넘기면서 천년만년 이르도록 자자손손 대를 이어 자손만대 이러하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